

햇빛·바람으로 월급 주는 재생에너지 중심도시 기반 마련



장세일 영광군수 취임 1년

“영광의 햇빛과 바람에서 비롯된 에너지 수익을 군민 모두가 나누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복지와 청년, 농업과 지역경제에 이익이 순환되는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재선거를 통해 군민의 선택을 받고 민선 8기 영광 군정을 이끌어온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1년을 맞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였다”라며 “군수가 일을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어르신·중장년·청년·아이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 확대, 민생경제 회복,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군수실에 공약 추진 상황판을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전국 최초 기본소득 조례 제정... “다음 세대 위한 포용성장 기틀 완성”

맞춤형 복지 확대·민생경제 회복·농어업 경쟁력 등 실질적 성과 도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며 신뢰 행정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군수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백수해안도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401억원,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입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402억원을 확보했으며, 해양수산부 CLEAN 국가 어항 공모사업에 계마항이 선정되어 15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과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건·복지·여가·교육·문화가 통합된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보전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누리는 통합형 돌봄 체계를 실현할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복지 정책도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어르신 틀니 지원, 효행수당 신설, 공공일자리 확대, 어르신 무료버스 운행, 치매 케어 시스템 강화 등 촘촘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장 군수의 군정은 인구 10만 자립도시 청사진 제시에 맞춰져 있다. 추진하는 모든 전략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그 핵심이 바로 ‘O&M(운영·유지관리) 거점기지’ 구축이다. 이 기지는 해상풍력 설비의 유지·보수는 물론, 부품 정비·선택 관리·기술지원 등

고부가가치 산업 기능을 포괄하게 된다.

또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에너지 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기업과 주민이 전력요금 절감 혜택을 공유해, 영광이 기업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산업입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에너지 산업과 수소산업, 첨단기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에너지 → 산업 → 일자리 → 인구 → 지역공동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그는 남은 임기도 자립도시를 목표로 지역주도형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일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낸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숏츠’ 통했다...해남군, 대한민국 SNS대상 7년 연속 수상

트렌드형 콘텐츠로 군민과 소통

해남군이 올해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 이어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대상’에서 기초지자체(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이번 ‘대한민국 SNS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단위 시상이다.

해남군은 2019년부터 7년 연속 수상(대상 5회, 최우수상 2회)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해남군은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대 채널을 중심으로 정책 설명과 행정 정보 생활·문화소식까지 군민과의 공감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트렌드에 맞는 ‘숏츠(Shorts)’ 형태의 짧은 영상 홍보물을 다수 제작에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은 행정 정보부터 생활·문화소식까지 군민과의 공감형 콘텐츠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홍보하는 열린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해양치유센터 힐링 프로그램 1만원에 즐기세요

‘청정 가을섬 여행’ 연계 이벤트

여행 참가자 치유센터 할인 혜택

완도군이 ‘2025 청정 완도 가을섬 여행’과 연계해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만원의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만원의 힐링’ 이벤트는 ‘완도왔섬, 치유됐섬’을 주제로 열리는 ‘청정 완도 가을섬 여행’ 참가자들이 부담없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다.

가을섬 여행 프로그램인 ▲제2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걷기 페스티벌 ▲정산도 은하수 투어 ▲생일도 명대리기 가운데 1개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 힐링 프로그램을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은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대표 프로그램인 딸라소풀과 해수 미스트 테라피,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를 이용할 수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전경.

완도군은 ‘청정 완도 가을섬 여행’ 기간 동안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완도 해양치유 홍보관’을 운영하고 ‘해양치유 힐링 한 컷’ 즉석 사진 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해양치유 성지인 완도에서 섬 여행을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도 가져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보길·노화도 해저관로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한다

사업비 679억원 투입 공급망 구축

내달까지 실시설계 2027년 마무리

물 부족에 시달려온 완도군 보길도와 노화도에 해저관로 등을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된다.

완도군은 보길·노화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보길·노화 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79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전남 해남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육상 관로 21.9km, 해저 관로 9.2km 등 총 31.1km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2개소도 설치해 하루 시설용량 1000㎥ 규모로 추진된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달까지 실시설계 등을 마친 뒤 12월 발주해 2027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맡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와 공사를 담당한다.



완도 노화읍 내리에서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는 모습.

완도군 관계자는 “해저 관로를 통해 보길도와 노화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물부족에 시달리는 섬지역의 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

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

10만원 이상 기부자 500명

네이버페이 5천원 포인트 쿠폰

목포시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땡스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 참여된다.

선착순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 쿠폰이 지급된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품으로 기부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 5000원 포인트 추가 혜택까지 받아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24~25일 젓갈타운서 ‘섬 새우젓축제’

신안군이 24~25일 지도읍 신안젓갈타운 일원에서 ‘제9회 섬 새우젓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김장철을 앞두고 신안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새우젓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의 청정해역에서 잡은 섬 새우젓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신안천일염으로 담가 육질이 단단하고 감칠맛이 뛰어나다. 면역력 강화, 뇌세포 성장 및 인지능력 향상, 염증질환 개선과 특히

소화기능 및 간 기능 개선, 항암효과, 다이어트 등에 좋은 음식이라 알려져 있다.

축제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새우젓을 활용한 음식 무료 시식회, 노래자랑, 밴드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삼삼삼 섬 등산대회’와 ‘뽕땅 먹거리축제’ 등 새우젓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음식점 친절 서비스 교육·결의대회

불친절 논란 해소·서비스 혁신 다짐

진도군이 일부 음식점의 불친절 논란으로 확산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고 친절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식 개선에 나섰다.

진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도군 음식점, 친절로 다시 태어납니다’를 주제로 ‘음식점 친절 서비스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위생업소 영업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친절 서비스 교육 ▲음식문화 개선 및 친절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친절 실천과 정결한 위생 관리를 다짐하며 위생업소의 품격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결의했다.

거리 캠페인에서는 영업주들이 ‘불친절 NO, 친절은 YES!’, ‘맛도 서비스도 진심 100%’, ‘감동 서비스로 다시 찾는 진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친절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결의대회를 통해 음식점 종사자들의 서비스 인식이 한층 개선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진도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영광군이 전 군민에게 50만원(2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2차 지원금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만9230명에게 총 246억원이 지급됐다.

군에 따르면 출타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 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9월22일~10월 31일) 신청 기간과 혼동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지급 대상은 총 5만540명으로, 이중 미신청자가 연장 신청 대상이다.

지급 기준일(2024년 12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날(12월28일) 이후 전출·사망·탈소·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